

력사의 땅 유평이여 천만년 길이 전하라!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1950년 10월의 잊지 못할 그날을 더듬어 (2)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유평리를 잊지 못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며 유평땅에 불멸의 평등사자를 남기신 주체 39(1950)년 10월 26일은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실로 의미가 큰 날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술의 상징으로, 20세기의 군사적기적으로 빛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근본적인 전환과 때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유평!

하기 위해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 가시는 것에 하는 원수님의 마을속에 유평혁명사적지는 그토 소중히 지켜받고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950년 10월은 정말 제일 어려운 시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의 시기였다고 거듭 되뇌하셨다. 세계전쟁사에 우리 조국의 그레 10월처럼 준엄하고 어려운 때는 있어본적 없다.

이 시기로 말하면 미제가 인친상륙작전을 감행한데 이어 대병력을 투입하여 미친듯이 달려들던 때였다. 미제는 「속전속결」을 떠들어 저들의 「승리」가 시간문제이라고 세계에 광고하고있었다. 이러한 사태에 겁을 집어먹은자들은 승리에 대한 심신을 잃고 불안과 비탄에 빠져 동요하였다. 미제고용간첩인 박헌영, 리승엽 등 당은 이러한 형세를 제놈들의 반혁명적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음모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것처럼 행세하면서 최고사령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미제는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죽음을 얻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준엄하였던 1950년 10월의 나날에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언제나와 같이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과 함께 있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천강이북지역들부터 최고사령부지휘소를 전개하시며 이여가신 역사적인 로정은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심신을 불태우게 하고 전국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한 빛나는 평등의 길이였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시련을 헤쳐나 가시던 준엄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세출의 강철의 평장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적사에 전하고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최고사령부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한 곳이란 도대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라 해되지 않는다. 안전한 곳은 운운하는것은 적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고

신은 살았다, 조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팎은 변독이었다. 강도 일 제를 요정사였듯이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불도 가니속에 처넣으실 배두산장군의 열적의 외계 포화에 잠긴 장산에 빛났었다.

「얼마나 좋은 시일입니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믿음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때에 군인들이 저렇게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홍봉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행성원에게 저기 가서 지휘관과 군인 몇사람을 데리고오라고 이르시었다.

잠시후 상위의 군사정호를 단 군관과 병사들이 달려왔다. 곁에에도 그리 하지 않았던 때에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게 된 군인들은 새치게 가슴을 울먹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어느 사단 군인들이고 일행이 몇명이나 되는 자야 알아보신 후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군관은 최고사령부부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라고 이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부는 왜 찾아가는가 다시 물으시었다. 군관은 사단이 구성지역 방어임무를 받고 구성으로 나간데 대하여서와 자기가 속한 편대는 사단 장으로부터 최고사령부를 호위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최고사령부를 찾아 이 벽동방향을 가고 자기 일행은 후편대를 뒤따라가는중이라는데 대하여 보고이르었다.

전사들의 총성에 가슴이 후두워오는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성원들에게 사단장이 사단에서 1개 편대를 떼어 최고사령부를 호위하라고 보냈고, 그 마을은 교잡지지만 그러나 전선에 한명의 전투원이 귀중한데 1개 편대를 전선에서 떼어 최고사령부호위에 돌린것은 잘 된것 같지 않소라고 하시며 군인들을 가리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들을 보시오, 침략의 무리들이 청천강을 건너 북으로 밀려들고있는 때에 배심이 든든하여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구성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적으로 넘어가야 하오. 하루빨리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가 동무들, 인민군진투원들에게 지어져있소.》

우리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950년 10월은 정말 제일 어려운 시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의 시기였다고 거듭 되뇌하셨다. 세계전쟁사에 우리 조국의 그레 10월처럼 준엄하고 어려운 때는 있어본적 없다.

이 시기로 말하면 미제가 인친상륙작전을 감행한데 이어 대병력을 투입하여 미친듯이 달려들던 때였다. 미제는 「속전속결」을 떠들어 저들의 「승리」가 시간문제이라고 세계에 광고하고있었다. 이러한 사태에 겁을 집어먹은자들은 승리에 대한 심신을 잃고 불안과 비탄에 빠져 동요하였다. 미제고용간첩인 박헌영, 리승엽 등 당은 이러한 형세를 제놈들의 반혁명적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음모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것처럼 행세하면서 최고사령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미제는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죽음을 얻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준엄하였던 1950년 10월의 나날에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언제나와 같이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과 함께 있었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천강이북지역들부터 최고사령부지휘소를 전개하시며 이여가신 역사적인 로정은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심신을 불태우게 하고 전국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한 빛나는 평등의 길이였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시련을 헤쳐나 가시던 준엄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세출의 강철의 평장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적사에 전하고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최고사령부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한 곳이란 도대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라 해되지 않는다. 안전한 곳은 운운하는것은 적들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고

《앞섰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신 군인들은 폭 풍양을 해방하고 계속 남진하여 서울을 해방하겠다고 굳게 결의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있고 화고 물으시었다. 군인들은 자신있다고 확실히 고백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막 밀러드는데 자신이 있던 말이지? 하고 다시 물으시었다. 군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전투를 하고있지만 꼭 이긴다, 우리에게는 강도 일 제를 때려부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꼭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런 신심이 중요하오. 민족놈들은 남의 집에 뛰어들고 강도이고 침략자이지만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지켜싸우는 주인이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시으면서 동무들이 이 어려운 때에 노래를 부르시오, 시를 읊으시오,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일이오라고 하시며 미제침략자들이 청천강을 넘어 북으로 밀러드는데 이 때 동무들이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일이오라고 하시며 미제침략자들이 청천강을 넘어 북으로 밀러드는데 이 때 동무들이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들을 보시오, 침략의 무리들이 청천강을 건너 북으로 밀려들고있는 때에 배심이 든든하여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구성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적으로 넘어가야 하오. 하루빨리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가 동무들, 인민군진투원들에게 지어져있소.》

《앞섰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대답하신 군인들은 폭 풍양을 해방하고 계속 남진하여 서울을 해방하겠다고 굳게 결의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있고 화고 물으시었다. 군인들은 자신있다고 확실히 고백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막 밀러드는데 자신이 있던 말이지? 하고 다시 물으시었다. 군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전투를 하고있지만 꼭 이긴다, 우리에게는 강도 일 제를 때려부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꼭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런 신심이 중요하오. 민족놈들은 남의 집에 뛰어들고 강도이고 침략자이지만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지켜싸우는 주인이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시하면서 동무들이 이 어려운 때에 노래를 부르시오, 시를 읊으시오,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좋은 일이오라고 하시며 미제침략자들이 청천강을 넘어 북으로 밀러드는데 이 때 동무들이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들을 보시오, 침략의 무리들이 청천강을 건너 북으로 밀려들고있는 때에 배심이 든든하여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구성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적으로 넘어가야 하오. 하루빨리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가 동무들, 인민군진투원들에게 지어져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들을 보시오, 침략의 무리들이 청천강을 건너 북으로 밀려들고있는 때에 배심이 든든하여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구성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적으로 넘어가야 하오. 하루빨리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가 동무들, 인민군진투원들에게 지어져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동무들을 보시오, 침략의 무리들이 청천강을 건너 북으로 밀려들고있는 때에 배심이 든든하여 김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고있소, 이런 훌륭한 인민군진투원들이 있고 인민이 있는데 최고사령부호위에 1개 편대를 둘필요가 없소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장에게 편대를 구성 방향으로 돌려라고 하였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구성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반공적으로 넘어가야 하오. 하루빨리 평양을 해방하고 서울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가 동무들, 인민군진투원들에게 지어져있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벨지끄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브류셀 벨 지 끄 왕 국 국 왕 필 리 뽀 하

나는 벨지끄왕국 국왕전에 즈음하여 폐하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103(2014)년 7월 21일

신념의 기둥을 여적같이

신동근 경동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위대한대원수령님을 현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실 신념의 기둥을 더욱 여적같이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령님의 불멸의 평등업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 한편 대원수령님을 칭송하는 노래들에 대한 보급을 정상화하여 충정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가고있는 참관자들 -전 승혁명사적지에서-

전화의 나날에 새겨진 일화들

강의성을 날개 한 크나큰 믿음

주제 39(1950)년 10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인민군지휘생원이 최전선에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뒤로 미루시고 그를 만나시었다.

피로가 짙게 어린 일군의 얼굴, 봉대가 감겨져있는 팔... 어두운 안색으로 더욱 토틈 일군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상재임은 그의 팔을 쓰다듬으시며 아직도 상처에 열이 있다고 못내 걱정하시었다.

피로한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고서 천천히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신 수령님께서서는 어려운 전선현황을 알려주신 다음 이 길로 동부전선에 나가 그곳 일을 맡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미어지는듯 한 이름을 애써 감추시면서도 전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그이를 무리듬 일군은 배성의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오면서 그이의 군사사상과 작전계획대로 하면 백전백승한다는것을 실제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고있던 그것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믿음에 한 어조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라 하고 말씀하시었고 떠나시는 그를 위해 자신께서 드셔야 할 식사까지 대대로 꾸러주시었다.

이날 그에게서는 전선에서 부상까지 당하고 돌아온 일군을 하루밤 쉬우지도 못하고 면길로 떠나보내신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어 마가들의 찬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야전지휘소의 크지 않은 뜨락에 오래도록 서게

한 기술자에게 보내주시는 편충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있는 일이다. 당시의 형편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게 제기된 송전선 작업을 누가에 맡기겠는가 하는 문제는 심중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때 내각의 책임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전기 기술자에게 이 과업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밤, 그 책임일군은 잠도 못 잤다. 그 기술자의 날달리 북쪽한 정격을 잘 알고있었던 일군으로서는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이제 손수 그려주시고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후 시범적으로 만든 말길마를 보아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사소한 부족점도 없도록 깊이 마음쓰시었다.

처음으로 말길마를 보아주시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마쪽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실은 포신을 보시면서 포신을 어떻게 우에 실었던 산으로 다닐 때 거처져 거든다고, 포신을 말장등과 일직선되게 실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길마에 실은 짐이 꼭 붙지 않는것을 보시고는 짐을 길마에 박아 붙여 힘을 고르도록 받도록 실어야 산에서 행한때 나무에 걸리지도 않고 또 짐이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시었다.

그러고 길마에 달린 고리를

말길마에 깃든 이야기

하기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행군 도중에 뜻밖에도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게 된 포병들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감이 가슴이 벅차올라 한결같은 목소리로 힘들을 떨었다.

하지만 전사들의 어깨와 잔등을 아파게 짓누르는 포의 무게를 가늠해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안색은 몹시 흐려지시었다.

최고사령부에 돌아오시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대하여 생각하시었다.

포병사령관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들이 박격포와 포탄을 메고 산으로 다니면 힘들어할것이라고, 지휘관들은 전사들의 힘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무기와 탄약을 맡아다 싣고다니면서 적과 싸왔는데 지금 전사들이 지고다니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하시며 박격포와 포탄을 맡아 싣고다니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이시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산과 강 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서 박격포와 포탄을 맡아 싣고다니게 한다던 전사들의 짐도 덜어주고 산악을 극복하는 데도 좋고 부대기둥도 바를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말길마를 짐을 싣기 위하여 말의 등에 안정처럼 엮은 도구를 말한다.

그에게서는 포를 싣고다니는 길마와 포탄을 싣고다니는 길마 두가지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말길마의 형태를

외국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전사들의 무한한 헌신성과 강의성에 끌리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고 또 울리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

경비인원과 함께 자동차도 한 대 내주고 같이 일할 전승원들도 특별히 잘하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보신 용건을 잊지 말고 보내주라 당부하시는것이였다.

어머 수령님의 절대적인 믿음에 어린 전충을 가슴에 품은 전기기술자는 지체없이 현지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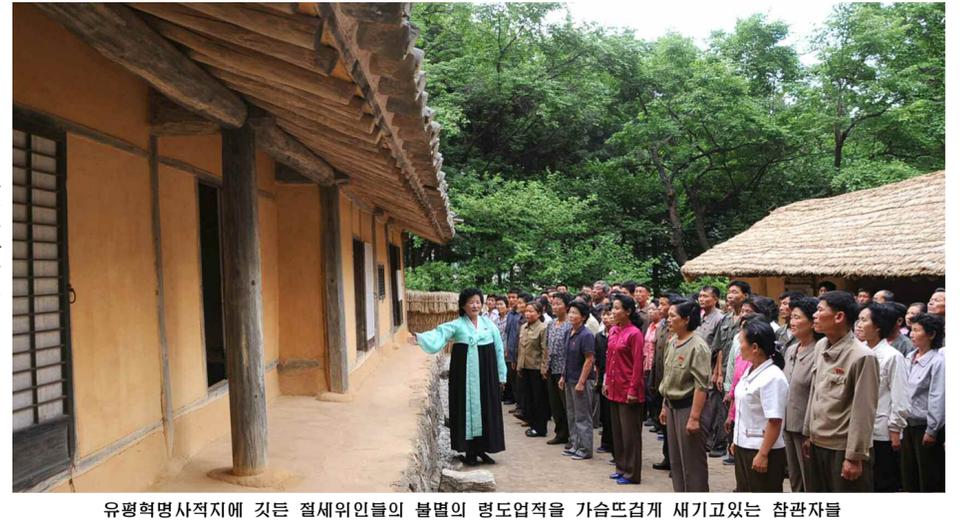
《수령님께서도 급변하는 전선정황속에서도 그는 아무런 마음의 흔들림도 두려움도 모르고 맡겨진 임무를 성파적으로 수행하였다.》

해방후부터 평범한 기술자에게 배려하시던 사랑과 믿음을 조국의 운명이 평가리되는 준엄한 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주시는 어머 수령님을 무리듬 멀어진 그의 하늘같이 바라다보고 같은 한량없는 믿음의 세계가 인겨와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러는 책임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전방으로 나가는 기술자의 신념에 대하여 못내 격중하시면서

본사기자 박 철

사진 본사기자 박 학 락



유평혁명사적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등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는 참관자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 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제시하신 계단별전략적방침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 강적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영재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전술들을 내놓으시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요인들, 조성된 군사정치정세, 적아간의 령관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는데 기초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계단별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는것이다.

제2계단에서 거둔 전과
적군살상수로 10만 9 920명

△ 제3계단 (1950. 10. 25-1951. 6. 10)

전쟁 제3계단의 기본과업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난 다음 빠른 시일내에 제진적으로 넘어가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구축하면서 적의 령망을 부단히 소멸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는것이다.

제3계단에서 거둔 전과
적군살상수로 45만 6 716명
적군포로포획 48만 9 304명
각종 포파피 및 로획 4 421문
자동차파괴, 로획 1 150대
비행기격추, 격상, 로획 977대
함선격침, 격파 96척

△ 제4계단 (1951. 6. 11-1953. 7. 27)

전쟁 제4계단의 기본과업은 미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완강한 진지방어전을 벌려 전선을 공고히 하는것이다.

제4계단에서 거둔 전과
적군살상수로 76만 3 478명

적군포로포획 3만 1 555명
함선격침, 격파 59척
포파피, 로획 547문
자동차파괴, 로획 213대
자동차파괴, 로획 619대
비행기격추, 격상 150대

제3계단에서 거둔 전과
적군살상수로 45만 6 716명
적군포로포획 48만 9 304명
각종 포파피 및 로획 4 421문
자동차파괴, 로획 1 150대
비행기격추, 격상, 로획 977대
함선격침, 격파 96척

제4계단에서 거둔 전과
적군살상수로 76만 3 478명

적군포로포획 23만 7 014명
적군포로포획 17만 2 896명
각종 포파피, 로획 1 128문
자동차파괴, 로획 387대
자동차파괴, 로획 4 348대
함선격침, 격파 25척
비행기격추, 격상 386대

적군포로포획 23만 7 014명
적군포로포획 17만 2 896명
각종 포파피, 로획 1 128문
자동차파괴, 로획 387대
자동차파괴, 로획 4 348대
함선격침, 격파 25척
비행기격추, 격상 386대

적군포로포획 23만 7 014명
적군포로포획 17만 2 896명
각종 포파피, 로획 1 128문
자동차파괴, 로획 387대
자동차파괴, 로획 4 348대
함선격침, 격파 25척
비행기격추, 격상 386대

적군포로포획 23만 7 014명
적군포로포획 17만 2 896명
각종 포파피, 로획 1 128문
자동차파괴, 로획 387대
자동차파괴, 로획 4 348대
함선격침, 격파 25척
비행기격추, 격상 386대

우리의 다양한 전법 창조

쟁 도 전 법
쟁도전법은 강도화된 영구 축성물과 그와 연결된 참호, 교통호, 화점 등 야전진지와 배합하여 요새화된 진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의 현대적무기에 의한 모든 타격으로부터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계를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차지한 방어선을 지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전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쟁도전법을 제시하신 후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모든 고지들에 쟁도를 기본으로 하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무기로 적비행기와 싸울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전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실천을 통하여 비행기사냥전의 경험을 쌓고 유생력을 확충하는데 기초하여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반적부대들에서 비행기사냥군조를 광범히 조직하며 적비행기와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비행기사냥군조의 인원력 무장, 전투방법, 화력전지의 선택 등 전법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

땅크사냥군조활동
미제침략자들이 지상전선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던 첫 시기부터 적땅크와 의 투쟁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40(1951)년 8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땅크사냥군조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당시까지 군사기들은 땅크와의 투쟁은 오직 위력한 반땅크포와 비행대 그리고 대중적인 땅크로탄 할수 있었다.

저격수조활동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40(1951)년 11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어 모든 전선부대들에서 매개 중대에 저격수조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저격수조들은 조직되자

이 작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비행기폭격과 수전발의 포격을 틀어쥐고 고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한달나름 특별히 훈련시킨 피뢰5보병사단판하 1개 편대를 공격으로 내몰았다. 중대는 령관상 우세한 적들과 무려 14시간 동안 힘없이 벌린 격전에서 단 한명의 손실도 없이 적병 900여명을 살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쟁도전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과업을 실현하는 전기를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였다.

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미제공중비행기들이 저공비행으로부터 고공비행으로, 주간비행에서 야간비행으로, 단독비행으로부터 편대비행으로 전술을 바꾼 사실은 우리 비행기사냥군조와 야간비행대의 눈부신 활동에 대하여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두해동안에 3 000대의 적기들을 격추!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하나의 기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땅크사냥군조원들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반땅크수류탄과 반땅크지뢰를 가지고 이동중이 있거나 집결되어있는 적땅크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습격과포하였다. 그날에 우리의 용감한 땅크사냥군조원들은 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200여대의 적땅크를 파괴하고 수많은 유생력량과 연유창고, 땅크포탄창고들을 폭파하는 위훈을 세웠다.

자 큰 생활력을 나타내었다. 적들은 《낮에는 인민군대저격수의 총알이 날아들고 밤에는 또 버락같이 죽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민군대저격수조 때문에 움쩍달싹할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다. 분노사자

조국해방전쟁에서 배출된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과 국가수훈자들, 국기훈장 및 자유독립훈장을 수여받은 부대,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들

△ 조국해방전쟁시기 배출된 공화국영웅, 로력영웅, 국가수훈자들

공화국영웅	584명
로력영웅	20명
국기훈장 제1급	2 105명
국기훈장 제2급	2 518명
국기훈장 제3급	5만 8 883명
자유독립훈장 제1급	98명
자유독립훈장 제2급	3 155명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	8 036명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	11만 4 454명
로력훈장	202명
군공메달	58만 3 535명
공로메달	3만 6 910명

△ 국기훈장 및 자유독립훈장을 수여받은 부대명

《조선인민군》신문 국기훈장 제1급 안동제12보병사단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1공병연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강계군관학교 자유독립훈장 제1급 김책정치군관학교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15보병사단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7보병사단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89보병연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1통신연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47보병사단 고사포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5군단직속 공병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1운수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2운수대 자유독립훈장 제1급 제82보병연대 자유독립훈장 제2급

△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명

근위 강건제 2보병사단
근위 서울김책제 4보병사단
근위 서울제 3보병사단
근위 제 6보병사단
근위 서울제 105땅크사단
근위 제 18보병연대
근위 제 10보병연대
근위 제 86보병연대
근위 제 14보병연대
근위 제 56추격기연대
근위 제 19고사포연대
근위 제 23고사포연대
근위 제 2어뢰정대

불멸의 전승업적 력사에 길이 전해지리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어린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뜻깊은 사적물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승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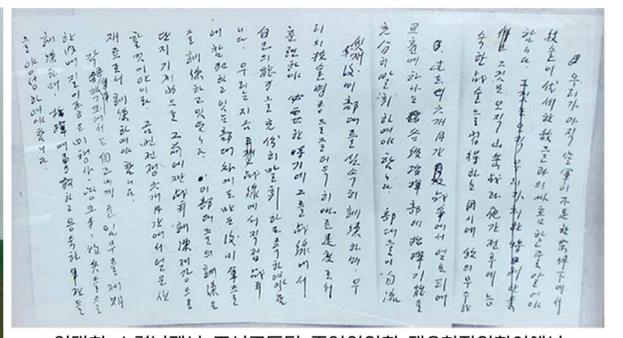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집무실의 책상과 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신 외투와 털모자, 장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전화기와 라디오, 쌍안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협정세와 당면과업》의 친필원고

군사력강화와 미국이 어떤 정당한 자위적 조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은 평화의 담보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침략적 도전이 날로 우세해지고 있는 오늘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은 무엇보다 담보되는가.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로케트발사훈련을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게 견고하면서 그들 구실로 저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고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매여달리며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이 날과 달을 이어가며 계속 벌어지고 있는 속에 얼마전부터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타격단위 공습이 들어 전방연습의 화약내를 질계 풍기고 있다. 이런자들이 도리어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강화조치를 시비질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도발이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우렁이 목욕이 아닐수 없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국력축적의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로선이고 정책이며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라바라 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선택한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천만군민이 억척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열어나가는 애국의 길이며 강자의 존엄과 배양으로 존엄한 역사의 폭풍우를 뒹고나가는 승리의 길이다. 평화의 혁명무예에 대한 우렁이 목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위적 군사력강화조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이다.

의 평화와 안전, 통일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지만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이 치솟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무전망강한 자위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선군정치와 그에 의해서 마련된 핵, 미사일용 중추로 하는 핵무력강화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거리의 안전도 행복도 있다. 우리의 군사력강화조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행위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군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세상에 노예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력은 어디에도 달하고있는 오늘 바리다고 하여 지킬수 없는것이 인민의 존엄이고 나라의 자주권이다. 주권이 약하면 그 주권으로 피눈물을 닦아야 한다는것은 식민주의노예살이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수난에 한 력사가 새겨준 피의 교훈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생명체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지킬 힘,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에서 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킨 미국은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그것으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자위성과 혁명적의지를 꺾어 버리고 획책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야말로 침략자의 날강도적정행의 극치였다.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화려하며 졸라매며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왔다. 다시는 침략자들의 노예로 살수 없게 하여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권을

호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오늘이와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 적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적대세력의 침략적도발을 단호히 짓밟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지킬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침해하는자들을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다. 자주권수호의 길에서는 원칙의 양보도, 순간의 타협도 있을수 없다.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야 한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의 군사력강화조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위대한 수단이다. 우리 거머는 누구나 평화환영성에서 살며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 것도 아니라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만 지켜지며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한 사람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희생물로 되고 피조물 이어든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건은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한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안정을 지킬수 없고 자주적발달과 평화적환경도 마련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희우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제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여러 나라들의 교훈은 우리의 군사력강

화조치가 천만번 옳은 선택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침략자들이 제아무리 핵무기와 최신공격수단들로 상대방을 위협해도 자제히 지켜내지 못한다. 도발자들을 제압하는 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전쟁은 더 효과적으로 억제되게 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과 위성을 보유한 강자의 존엄과 자신성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총포성능의 대결전의 승리를 안아온 영웅적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혁명군대는 만능의 주체전법과 그 어떤 대안에도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신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갖춘 무전망강한 백두산혁명군대로 위용번치고 있다. 최근에는 은 군사훈련들을 통하여 보여준 열의와 명증포성은 분별없이 날뛰는 원수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들의 서한침중도와 분노, 참을김 없는 보복일벌의 폭발이며 천만군민의 무지함도 정정선언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백방으로 다져가는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가 부러워 하든 정세가 어떻게 달라져도 판이 없어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가 다진 무전망강한 자위적억제력은 결코 미국의 말라하고 부귀를 위한 상투가 아니라 우리의 무장투쟁을 노리는 적대세력의 협상탁우에 올려놓을수 없는 정치적응답물이다.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귀중한 생명이며 통일조국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중동의 단초제비이다.

최근 미국이 무모하게 날뛰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이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타격단위를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하고 핵전쟁연습을 광범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분별한 군사적대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전쟁경로로 치달고 있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평화파괴행위이다.

미국은 《포함외교》로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최근 미국이 무모하게 날뛰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이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타격단위를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하고 핵전쟁연습을 광범위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무분별한 군사적대행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전쟁경로로 치달고 있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평화파괴행위이다.

우리들은 미국에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범하려다가 단호한 반격을 받고 국제무대에서 수치스러운 망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사치스러운 땅에서 아첨하기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사찰자들은 대대적으로 상시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의 《포함외교》를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변방에는 수법으로 여기고 오느라 핵위협과 공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발전도상 나라들을 비호하여 비핵화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공갈하여 저들의 강대국요구를 내리먹이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가고있으며 침략전쟁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 대한 무력공격때도 그러한 수법을 썼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에서도 핵무기를 휘둘렀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놀란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자주권이 심각히 위태로워졌으며 핵공포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핵위협과 공갈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책동은 단계적으로

더욱 로골화되어왔다.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그해에 벌써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1950년 11월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미전략항공대에 그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전후에 들어서서도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핵공격을 강행하기 위해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세계화회의 핵확약, 핵전쟁초기조치로 전면시작했다.

지난 시기 미국은 이러한 핵무기를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여놓았다. 1969년에 《포커스 케터링》작전으로 시작된 미군남조선공동핵전쟁연습이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킬 스트리트》, 《연합전시훈련연습》, 《키 리콜》, 《독수리》와 《윤지 프리덤 가드인》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수선년동안 감행되어오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 미국은 핵전쟁광들은 도수를 넘어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이 이번엔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타격단위와 이지스수중함 《키드호퍼》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도 핵위협과 공갈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려는 어리석은 기도라 현실적으로 재현되고있다는것을 예시실 나라들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자주권이 심각히 위태로워졌으며 핵공포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핵위협과 공갈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책동은 단계적으로

우리는 미국에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범하려다가 단호한 반격을 받고 국제무대에서 수치스러운 망신을 당한 것만으로도 사치스러운 땅에서 아첨하기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사찰자들은 대대적으로 상시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남조선의 근해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의 《포함외교》를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변방에는 수법으로 여기고 오느라 핵위협과 공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발전도상 나라들을 비호하여 비핵화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공갈하여 저들의 강대국요구를 내리먹이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가고있으며 침략전쟁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 대한 무력공격때도 그러한 수법을 썼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에서도 핵무기를 휘둘렀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놀란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자주권이 심각히 위태로워졌으며 핵공포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핵위협과 공갈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책동은 단계적으로

북남판계를 가로막는 전쟁연습 반대

남조선의 민주인생평화통일추진위원회가 북침전쟁연습소동의 중지 요구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감행하는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에 일본도 합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강행은 북과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애국적이며 남북관계개선으로 이끄는 행위로 구상하였지만, 군부당국이 일본까지 참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수색, 구조를 위한 해상훈련이라고 하고있지만 수색과 구조에 핵항공모함을

동원한다는것을 누가 납득할수 있겠는가 하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해상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적대적 자위권행사》에 힘을 주는것으로 되니 단도 단죄한다. 성명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판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합동군사연습은 항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부산해군기지앞에서 미 제정락군과 야합하여 벌이는 침략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기

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일본의 《적대적 자위권행사》에 힘을 주는것으로 되니 단도 단죄한다. 성명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판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합동군사연습은 항상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부산해군기지앞에서 미 제정락군과 야합하여 벌이는 침략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기

《련합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부》를 통선에 그대로 두려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미국이 서울 통선에 있는 미군부대들을 병력으로 이전시키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사령부를 그대로 늘려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저들의 필요에 따라 제대로 자기 리익을 고집하여 두 집살림을 하였다

는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통선미군기지이전 미국은 요구에 따른것이며 약속과 기

의 책임도 미국에 있는것만큼 기지이전행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여 여전히 심각한 정치적문제 제기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 지어 군사적충돌로까지 번져지고 있다. 이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사회적안정,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청난 위협을 받고있으며 인류문명발전의 위적침해를 미치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유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쳐지고 있다. 그들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해당 나라들이 정책을 비롯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시시콜콜히 개입하고 갖대질 해댄수 있는 무기로 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삼아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체제까지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의 주된 목적은 반민주적인 나라들이다.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남조하여 그것을 범죄시키는 반면에 저들에게 공경하는 나라들을 《인권옹호국》으로 추켜세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에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추종세력까지 동원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체제변경을 실현하자라는 것이다.

《자유보장》과 체제변경을 강요하여왔다. 쿠바인민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선택한 길로 뜻을 굽히지 않았을 때 거센 반민주배제의 공격을 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책동은 본래가 그대로 범지구적인 인권유린행위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타령은 침략과 전쟁의 전구적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헤르만》과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공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지난 해 80년대에 감행된 그레네이더와 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1990년대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감행되었던 것이다. 최근년간에도 미국은 중동의 일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벌이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이러한 실례를 합쳐보면 족이 없다.

있을수 없다.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 참다운 인권은 누리자면 무엇보다 먼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증명한 인권유린행위는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고 인권에 침해를 행하는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이것은 참다운 인권보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개 나라들이 인권문제를 확고히 걸치 하면서 나라의 독립권강화에 힘을 넣어야 한다. 인권이 자국적이다.

《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삼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남조선 각계층 대중 1만 5 000여명 서울에서 투쟁 전개

《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 남조선 각계층 대중 1만 5 000여명 서울에서 투쟁 전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만행